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리스크 모니터 **2025/2026**

전 부품군으로 확산된 리스크와 대응 전략

Deloitte Insights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자사와 주력 부품군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정체, 중국 OEM의 부상, 전동화 기술 경쟁, 공급업체의 재무 회복력 약화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용 절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딜로이트는 19개 부품군을 25개 선행지표로 분석해 제품군별 위험 수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분석 결과, 모든 부품군의 위험도가 상승했으나 그 수준과 원인은 제품 특성과 기업의 재무·혁신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부품사는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재무 여력과 수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기술 포트폴리오를 선별하고, 기존 사업의 현금창출력 확보와 고객 다변화, 한계사업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번 리포트가 **국내 부품사들이 자사의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개선·회수·철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준 파트너

자동차 산업 리더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동차 산업의 당면 과제와 공급업체 리스크

생산 정체와 중국 OEM 부상, 전동화 격차, 유럽의 비용·규제 부담으로
부품 공급업체의 수익성·재무 여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당면 과제	부품 공급 업체 리스크
01	글로벌 승용차 생산량 정체 2023년 이후 연평균 0.2% 성장에 그쳤으며, 2025~2026년에도 정체가 예상	수익성 악화 및 수주 기반 약화
02	생산 전망치 하향 조정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몇 년간 생산 전망이 반복적으로 하향 조정	예산·유동성 관리 불확실성 확대, 투자자 신뢰 약화
03	중국 OEM의 시장 지배력 확대 중국 완성차 글로벌 점유율, 2019년 11% → 2026년 24% 전망	기존 수주량 감소 및 공급망 재편 압력 증가
04	전기차 시장의 중국·미국 우위 2019~2024년 중국·미국 OEM은 BEV 생산 비중을 20%p 이상 확대	전동화 기술 격차에 따른 기존 사업 약화와 전환 투자 부담
05	유럽의 사업 환경 악화 높은 에너지·인건비와 규제 비용으로 유럽 공급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	유럽의 고비용·고규제 환경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생산 거점 재편 압력
06	부품 공급사의 재무 회복력 취약 대형 공급업체 12%· 중소 공급업체 19%가 위험 구간* 진입	재무 충격 발생 시 대응 여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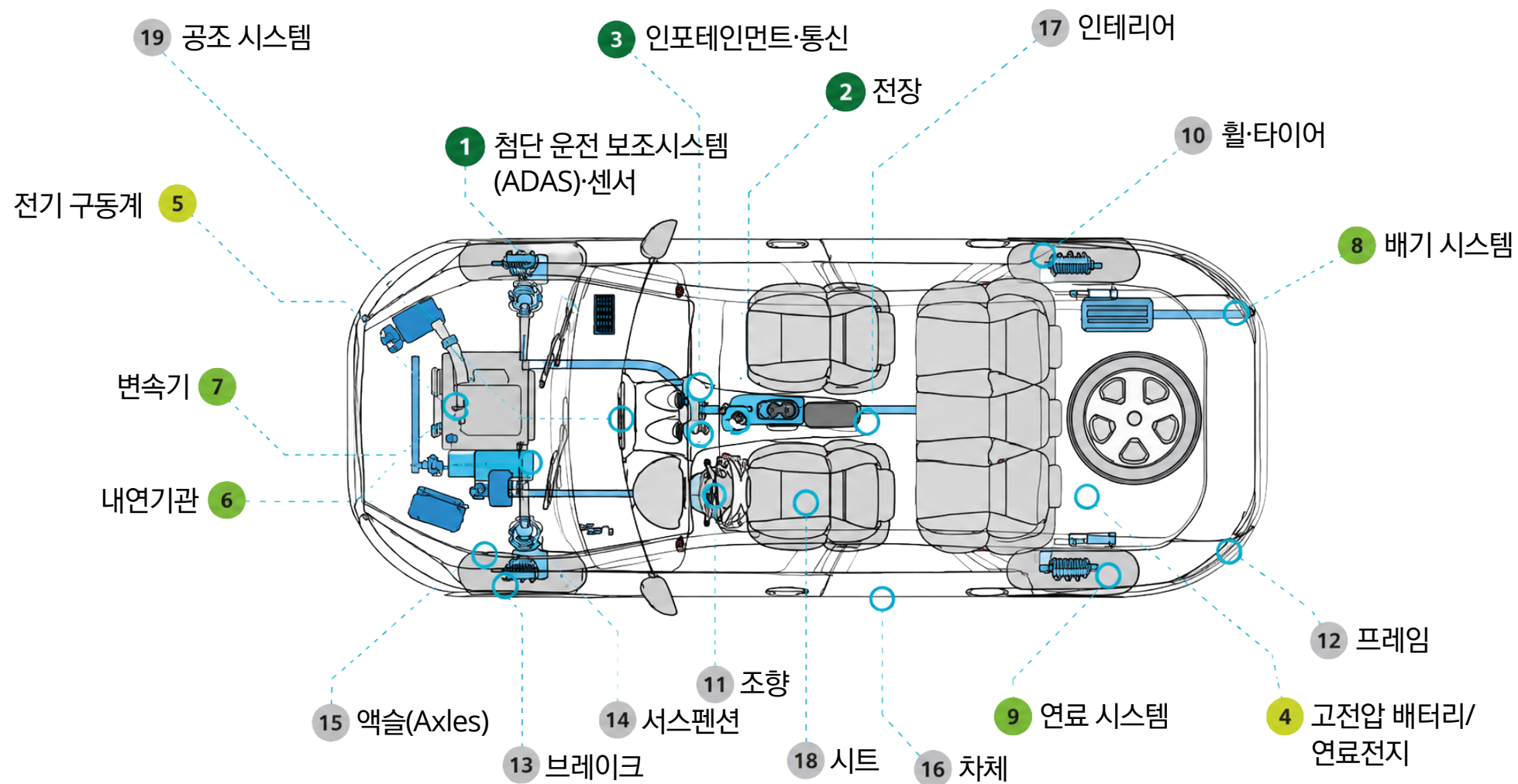
* EBIT 마진 5% 미만인면서 순부채/EBITDA 비율이 3배 이상인 기업

자동차 부품군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진단 대상 (평가 영역)



- 커넥티드·전자 부문: 소프트웨어·전장화를 주도하는 부품군
- 내연 기관 관련 기술 부문: 차량의 골격·편의·안전·주행 성능을 담당하는 성숙 부품군
- 신규 구동계 부문: 전동화·친환경차의 핵심 동력 부품군
- 전통 기술 부문: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핵심 동력 전달·배출 부품군



리스크 요인 및 진단 지표

외부 리스크 요인 (통제 불가)	시장 구조 및 경쟁 강도	시장 성장성·원자재 가용성·인재 확보 여건·부도 발생률·M&A 매력도
	규제·사회적 환경	입법 동향·환경 규제 압력·보조금 영향·생산 거점 취약성
	미래 시장 가치	기업가치·부품 가치 비중 변화·시가총액·IPO 매력도·신규 진입 매력도
내부 리스크 요인 (통제 가능)	현금 창출력	수익성·영업현금흐름·비용 구조의 유연성·운전자본
	변화 적응력·혁신역량	투자 의향·R&D 지출·특허 기반 혁신 역량
	신용도	부채 위험 프리미엄·재무구조·애널리스트 신용평가·부채 상환 능력

2026년 자동차 부품군별 리스크 순위

전통 부품군은 시장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고위험군에,
ADAS·배터리·전기 구동계는 성장성과 혁신 투자로 저위험군에 집중됩니다.

	2026년 순위		부품 클러스터	리스크 점수
 최고 위험군	1	악화	프레임(Frame)	4.63
	2	악화	시트(Seat)	4.61
	3		내연기관(ICE)	4.45
	4		연료 시스템	4.29
	5		액슬(Axles)	4.29
	6		배기 시스템	4.18
 고위험군	7		변속기	3.95
	8	악화	인테리어	3.86
	9		공조 시스템	3.73
	10	악화	서스펜션	3.58
	11		조향	3.49
	12		차체(Body)	3.39
	13	악화	브레이크	3.38
	14		휠·타이어	3.36
 저위험군	15		인포테인먼트·통신	3.24
	16		전자장치	3.22
	17		ADAS·센서	2.59
	18		고전압배터리/연료전지	2.40
	19		전기 구동계	2.25

리스크 최고·최저 부품군 TOP3 분석

고위험군은 차별화 실패와 전동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저위험군은 전동화·자율주행 성장성이 리스크를 좌우했습니다.

최고 위험 TOP 3

1위



프레임 (Frame)

차별화 실패로 가격 경쟁과
소재 전환 부담 가중

2위



시트 (Seats)

차별화 실패로
가격 경쟁 심화

3위



내연기관 (ICE)

전동화에 따른
수요 감소

최저 위험 TOP 3

17위



ADAS·센서

최저 리스크 부품군은 전동화·자율주행 핵심 기술로 성장성과
정책 지원의 수혜를 받으며, ADAS는 안전 규제 의무화에 따른 마진 확보,
전기 구동계는 탈탄소 전환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가장 낮은 리스크를 보입니다.

18위



고전압 배터리/연료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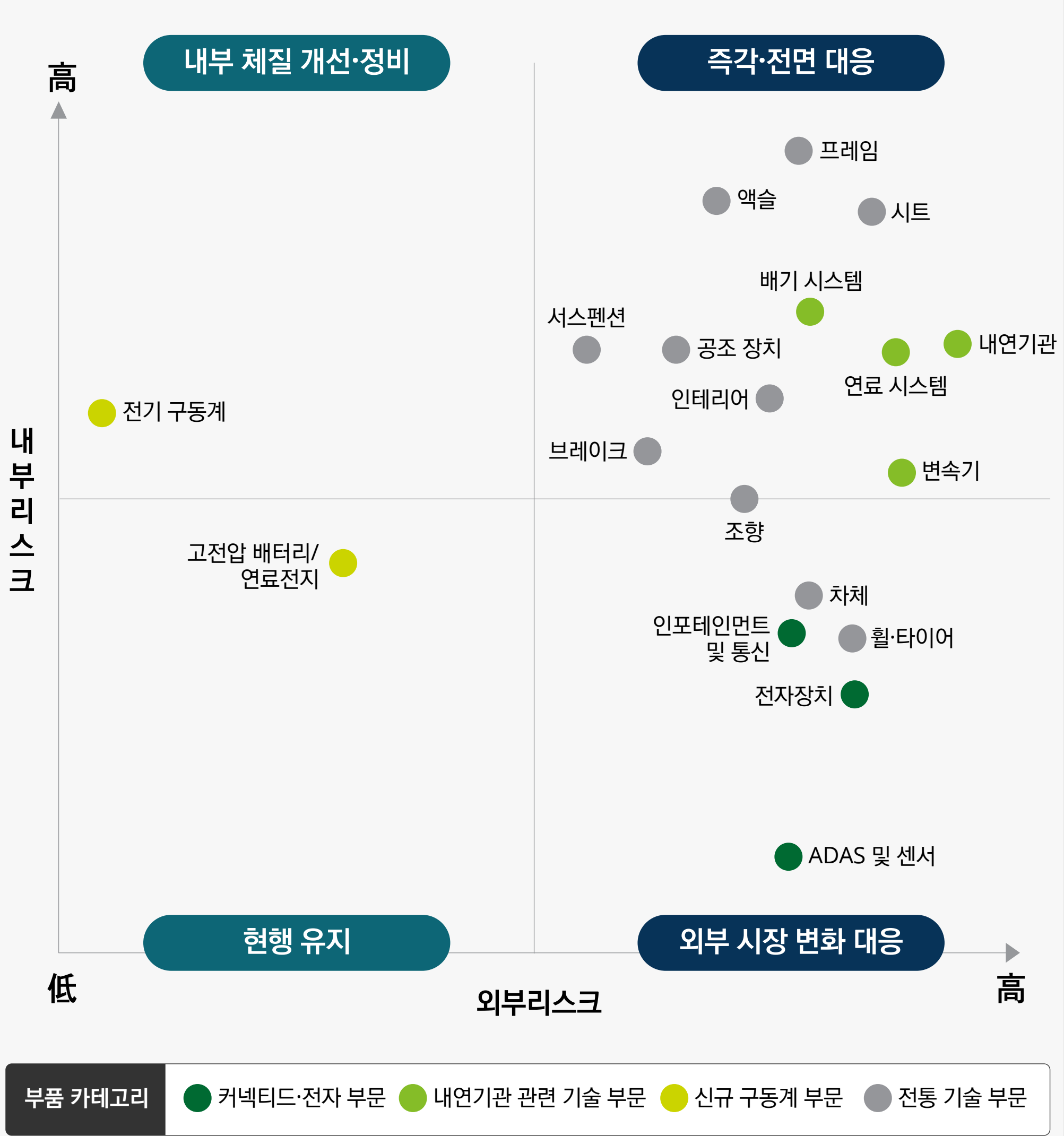
19위



전기 구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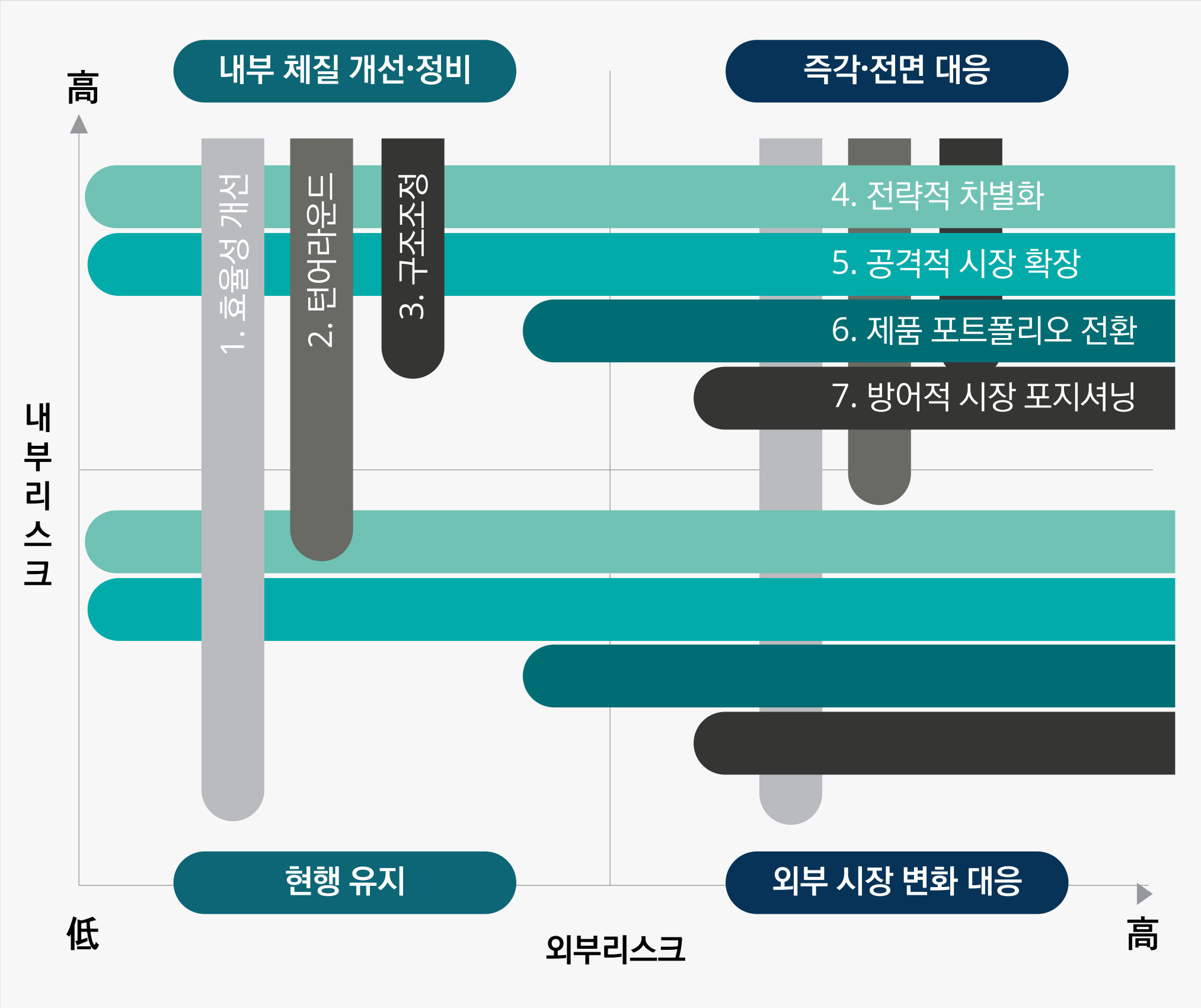
2026년 자동차 부품군별 내·외부 리스크 포지셔닝

1사분면의 고위험군은 즉각적인 전면 대응이,
나머지 부품군은 위험 원인에 따른 내부 체질 개선 또는
외부 환경 대응을 추진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합니다.



딜로이트 전략 프레임워크

운영·재무 조치는 수익성과 유동성 회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전략적 조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집중할 시장과 철수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 막대의 길이는 해당 내·외부 리스크 부분에 놓인 부품군 기업이 각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범위
- * 막대가 길수록 그 위험에 놓인 기업일수록 해당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

운영·재무 조치	1. 효율성 개선 2. 턴어라운드 3. 구조조정
전략적 조치	4. 전략적 차별화 5. 공격적 시장 확장 6.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7. 방어적 시장 포지셔닝

자동차 부품군별 리스크 완화 전략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는 리스크 완화를 위해 운영·재무 상황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커질수록 대응 강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전략 방향	전략 목표	실행 과제
 운영·재무 조치	① 효율성 개선	☑ 리스크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공급업체가 상시 추진하는 기본 조치 ☑ 부채·비용·운전자본 관리로 재무 건전성 개선
	② 턴어라운드	☑ 수익성을 회복하고 변화한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 ☑ 공급업체 간 협력 확대, 수요에 맞춘 생산능력·인력 규모 조정
	③ 구조조정	☑ 유동성 위기와 임박한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 OEM과 지급조건 재협상, 대체 부채 조달처 확보
 전략적 조치	④ 전략 차별화	☑ 대량생산, 기술 리더십 등으로 경쟁사와 차별화해 진입장벽을 세우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
	⑤ 공격적 시장 확장	☑ 이미 시장 점유율·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진 기업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인수합병이나 기술 고도화로 시장 지배력 강화
	⑥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 제품 구성을 바꿔 시장 내 위치를 지금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
	⑦ 방어적 시장 포지셔닝	☑ 시장 물량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 손실을 최소화하며 버티거나 계획적으로 철수

국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전략적 시사점

국내 부품사는 리스크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기술 포트폴리오의 선택적 전환, 고객·시장 다각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사가 집중해야 할 방향

실행 과제

01

사업·기술 포트폴리오의
선택적 전환

- ☑ 제품 포트폴리오 제고
- ☑ 기존 역량 연계 분야에 선별 투자
- ☑ 수주 가능성·사업성·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단계별 투자 집행

02

고객·시장 다각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

- ☑ 고객·차종·지역별 집중도 관리
- ☑ 글로벌 RFQ 대응 조직 구축
- ☑ 시장별 최적 진출방식 선택

03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 ☑ 운전자본·유휴자산 정비
- ☑ 재무 상태별 차별화된 실행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자동차 산업 전문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동차 산업 전문팀은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한 오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자동차 산업 전문팀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으며, 고객들의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회계, 세무자문, 국내외 M&A, 해외 진출전략 등 전통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고객경험혁신 자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의 수많은 과제와 혁신을 고객과 함께 해왔습니다. 딜로이트 자동차 산업 전문팀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파트너

자동차 산업 리더 | 회계 감사 부문

☎ 02 6676 1645
@ sanpark@deloitte.com

오용석 파트너

자동차 산업 | Monitor Deloitte

☎ 02 6138 5766
@ yongsoh@deloitte.com

이종범 파트너

자동차 산업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637
@ jongblee@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자동차 산업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김형수 파트너

자동차 산업 | 회계 감사 부문

☎ 02 6676 1774
@ hyungskim@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드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연구원
이소윤 Consultant
soyunlee@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